

老 비구니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 '감동'

운문사 故 혜은 스님, 동행에 4천만 원 지정기탁

승려복지·생명나눔 등에 사용
평생 수행·가람 수호에 매진
"생명 구하는 일 써라" 유훈
문도들 검소한 장례 후 기부

어 부탁하노니 조의금이나 화환을 사절했으면 좋겠다. 조화는 낭비라 생각되어 부탁하니 간단히 쓰도록 하고, 고임새는 하지 말고, 화장 후에 유골을 수습하지 말고 바다나 강물에 뿌리도록, 재는 여러 곳을 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하고 여유가 있으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뜻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운문사와 문도 스님들은 이런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스님의 장례식을 경주 동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검박하게 치렀다. 일체 조의금은 받지 않았고 부고도 내지 않았다.

또한 문도들은 생전 혜은 스님이 사후 안구 기증을 신청한 뜻을 실행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입적 당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중동기호흡중후군(MERS)' 여파로 기증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했다. 실제 안구 기증을 하지 못한 문도 스님들은 "스님 생전의 뜻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크게 죄스러워 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운문사와 문도회는 혜은 스님의 마지막 뜻을 실천하기 위해 아름다운 회향을 결정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혜은 스님의 장례를 위해 쾌척한 5000만 원의 기금 중 장례를 마치고 남은 모든 비용을 동행에 지정 기탁하기로 한 것이다.

총 4000만 원의 기금은 동행을 통해 선원수좌복지회(2000만 원)와 승려복지회(1000만 원), 스님의 안구 기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생명나눔실천본부(1000만 원)에 각각 나눠 지정 기탁했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 문제 대화로 해결해야"

조계종 원로회의·정상화 추진위 23일 회동서

조계종 원로회의가 제안한 종단과 선학원의 만남이 선학원의 거부로 불발된 가운데, 원로회의 의장단과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스님들이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원로회의 의장단과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23일 서울 AWC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과 부의장 명선 스님,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법등 스님, 상임위원 현진·도진·법준·강설·진각스님, 원로회의 사무처장 광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은 "종단과 선학원 양 쪽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이고자 한 것"이라며 "종단이 선학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줘야 한다. 힘이 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끝까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의장 명선 스님도 "스님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 선학원 이사진뿐만 아니라 전체 스님들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서로가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로회의는 선학원 이사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정상화추진위와 함께 자리하는 것을 확인한 선학원이 완곡히 만남을 거절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회동으로 변경됐다.

한편, 선학원은 7월 23일 임시 이사회를 갖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장학금의 액수 및 선발주기, 대상, 지급기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계종의 교육제재조치에 대비한 것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6월에 있었던 만해 스님 추모행사 보고의 건 등 총 12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신성민 기자

유예 조치 마감 앞두고 140개 법인 등록

오는 7월 31일로 조계종 '법인관리 및 자원에 관한 법'의 미등록 법인 권리제한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유예 마감을 앞두고 조계종 소속 법인들의 종단 등록들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7월 22일 현재까지 종단 등록을 마친 법인 수는 140여 곳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이 파악한 법인 등록 대상 수는 230곳으로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 3월 1일까지 등록된 법인은 111곳으로 30여 곳이 증가했다.

법인 산하에 사찰을 보유한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11개 대상 법인 중 8개 법인이 등록했다. 등록된 법인은 성문불교문화재단,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대각회, 불교문화진흥 성찬회, 불교안양원, 연화, 한마음선원법인이다. 조계종과 갈등 중인 선학원과 법보선원, 보리동산은 등록하지 않았다.

'사찰 법인'은 7곳 대상 중 5곳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월까지의 등록을 하지 않

조계종 법인관리법 근거해

7월 31일 등록 최종 마감

3월보다 30여곳 등록 증가

마감시 160여곳 등록할 듯

8월부터 제재 조치 시행돼

미등록 법인 권리제한 예상

있던 만불회가 7월 2일 등록을 완료했지만, 외국인들로 임원진이 구성된 송산국제선원은 아직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 대표 사찰인 능인선원 역시 종단 등록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찰법인은 여진불교문화재단과 세등선원, 대한불교 삼불산 대안사, 옥련선원, 만불회다.

4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가장 많은 등록을 보인 곳은 스님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승려법인이다. 3월 당시 64개에 그쳤지만 현재까지 95개의 법인이 등록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 종단법인 6곳, 사찰출연법인 28곳, 사찰공동출연법인 1곳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

7월 31일부로 유예 조치가 끝나면 곧바로 미등록법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인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종단에서 지원하는 승려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중무

직, 교육 및 포교기관 교직원 및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의 임원이 불허되며 종단의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

당장 문제는 미등록법인의 도제들이다. 법에 따르면 종단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미등록법인 도제들은 더 이상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선원과 강원의 퇴방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관계자는 "유예 기간이 아직 1주일가량 남아있고 등록 서류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감이 완료되면 약 160여 곳이 종단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미등록법인에 대한 행정 제재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불이익을 막기 위한 대상 법인에 대한 계도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美 '세컨드 레이디' 진관사서 한국을 만나다

7월 18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서울 은평구 북한사 자락에 위치한 진관사를 찾았다. 바이든 박사는 1시간 30분 동안 진관사에 머물렀으며, 주지 계호 스님과 총무 법혜 스님이 직접 나서 진관사의 지리적 환경과 자연경관에 대해 설명했다. 바이든 박사는 진관사 나가원의 조왕단 앞에서 조왕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독대를 둘러보고 효림원에서 우전(雨前·곡우 전후 따는 햇차로 만든 녹차)과 떡, 과일을 들면서 '여성 교육'을 주제로 차담했다.

미국 세컨드 레이디(Second Lady, 부통령 부인) 질 바이든 박사가 한국 첫 행선지로 비구니 사찰인 진관사(주지 계호)를 선택했다. 아시아를 순방한 바이든 박사는 7월 18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서울 은평구 북한사 자락에 위치한 진관사를 찾았다. 바이든 박사는 1시간 30분 동안 진관사에 머물렀으며, 주지 계호 스님과 총무 법혜 스님이 직접 나서 진관사의 지리적 환경과 자연경관에 대해 설명했다. 바이든 박사는 진관사 나가원의 조왕단 앞에서 조왕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독대를 둘러보고 효림원에서 우전(雨前·곡우 전후 따는 햇차로 만든 녹차)과 떡, 과일을 들면서 '여성 교육'을 주제로 차담했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제공=진관사

성보박물관 향온향습 국가지원 시작

문화재청, 올해 5억 1000만원 예산 편성

여름장마철을 앞두고 문화재청이 성보박물관의 향온향습비를 지원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7월 23일 지정·비지정 동산문화재를 다량 소장하고 있는 주요 성보박물관에 대하여 유물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 1,490건, 비지정문화재 10만여 점으로 이들 문화재 대부분은 사찰 관계자 등 자체 인력이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시관·수장고 운영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은 2015년 성보박물관의 향온

향습비 지원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전체 35개 사찰유물전시관 중 교육용 전력 독립계량기가 설치된 대구 동화사, 경남 쌍계사 등 21개 사찰유물전시관이다. 전시·수장 시설규모와 유물 수량 등을 평가해 3개 등급으로 구분, 전기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85%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사찰유물전시관뿐만 아니라 일반 문종의 유물전시관에 대해서도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인 과세 재추진 이번엔 성공하나

기재부 8월 세재개편안 발표

세재개편안을 준비 중인 정부가 2년 만에 '종교인 과세'에 재도전한다. 지난 2013년 세재개편안 때 종교인 과세 방안이 발표됐으나,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되다 흐지부지된 이후 2년 만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득의 종류에 '종교인 소득'을 별도로 신설하고, 과세 체계도 정비하는 등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 정면 돌파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초 예정된 세재개편안 발표에서 새로운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될 종교인 과세의 핵심은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세재개편안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지만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정부는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징수 방법도 종교인 소득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종교 단체에 대한 원천징수보다는 일단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해 왔지만 개신교계는 과세를 원칙적으로 반대해 왔다. 신성민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흥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ICB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문화재단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방명합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